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세 나라가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이사야서에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얹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한 뒤에,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앗수르에게까지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 세 나라를 향한 심판 예고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9:8-21). 그들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 심판의 경고는 남유다를 향합니다(10:1-4). 유다의 죄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고발되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층들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고 굵은 판결을 내려서 약한 자들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쌓은 재물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재물이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앗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10:5-19).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주제와 한계를 망각한 채,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세 나라의 최악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착취를 통해서라도 재물을 쌓아놓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크기와 세력과 규모를 과시하며 선을 넘는 행태로 드러났습니다. 교만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엔 파멸이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현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앗수르의 힘을 빌리고자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의 재물을 탈탈 털어 바쳤으나,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대하 28:19-21). 반면 남은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길을 찾고 그 길로 향하는 이들은 심히 적습니다(마 7:13-14).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자신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남은 낮은 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